

노인 의료비 5년간 1.6배 급증



노인 의료비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 추세라면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지난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2022년 1/4분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 개요'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가 매년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특히 노인진료비가 크게 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6년 25조 187억원에서 2021년 40조6천129억원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노인 진료비는 2016년과 견줘서 5년간 1.6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 비중도 2016년 38.7%에서 2021년 43.4%로 계속 늘었다. 이런 추세대로 가면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에 달하게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이처럼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차지하는 노인 인구가 늘고 비중도 커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령화로 노인 인구는 더 가파르게 늘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0년 16.1%에서 2040년에는 35.3%로 높아진다. 2040년에는 국내 3명 중 1명이 고령 인구라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의료수요와 의료 이용량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방임에 가까울 정도로 의료 이용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황,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 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샤론
한의사,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한국, 7대 우주강국 도약'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의 발사가 성공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로 1톤(t) 이상인 실용적 규모의 인공위성을 우주 발사체에 실어 자체 기술로 쏘아올린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

지난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누리호는 이날 오후 4시에 발사체 성능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 분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에 따라 누리호 위성 모사체와 성능검증 위성은 계획대로 지표면 기준 700km 고도에서 초속 7.5km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누리호는 순수 한국 기술로 설계·개발된 최초의 우주 발사체다. 2013년 3차 발사에서 성공한 누리호(KSLV-I)은 2단만 한국 기술로 개발됐고 1단은 러시아에 의존했다.

이와 달리 누리호는 위성을 쏘아올린 75톤(t)급·7t급 액체 연료 엔진으로부터 발사체에 탑재된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인 페어링에 이르기까지 핵심 기술과 장비 모두를 한국 연구진이 개발했다.

특히 향후 대형·소형 발사체 개발에 지속적으로



▲ 누리호 발사 사진.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활용할 수 있는 75t급 엔진의 성능을 성공적으로 입증함에 따라 앞으로의 우주 개발의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성공을 계기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27년까지 총 6천874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누리호 3차 발사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더 가팔라지는 인구절벽

2019년부터 시작된 인구 자연감소의 폭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1,619명(46.3%) 증가했다.

지난 22일 '뉴스1'에 따르면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인구는 1만5,573명 자연감소했다. 이에 따라 1~4월 누적 자연감소 인구는 5만759명으로 증가. 2020년 전체 인구 자연감소 분인 3만2,611명을 이미 넘어섰으며 지난해의 5만7,280명에 근접했다.

4월 자연감소 인구는 역대 4월 중 가장 큰 폭이며 월별 전체로 보더라도 올해 3월(2만1,562명)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치다.

4월 출생아 수는 감소한 가운데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자연감소 폭이 커졌다. 4월 출생아 수는 2만 1,12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86명(7.0%) 줄었다. 반면 사망자 수는 3만6,697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한국의 전체 인구는 1983년 1월 통계 집계 후 월별 수만 명대 자연증가를 지속하다가 2002년 자연증가 분이 만 명대로 줄었다. 그러나 2018년 12월 처음으로 자연감소(3,756명)가 발생한 후 2019년 10월까지 자연증가를 유지하다가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월 자연감소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1만4,550명)에 이어 올해 3월(2만 1,562명)과 4월(1만5,573명) 두 달 연속으로 자연감소 인구가 1만 명을 넘기는 등 감소폭도 커지고 있다.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통계청의 장례인구 추계를 보면 출생률과 기대수명을 비관적으로 잡은 최악의 시나리오(저위 추계)의 경우 한국의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50년 4,333만 명으로 16.4% 감소할 전망이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황,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 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Dr. 백샤론
한의사,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